3 -MAY 2 6
Copy ______ 1959

해가 바뀔수록 더욱 거세게 울리는 조선 인민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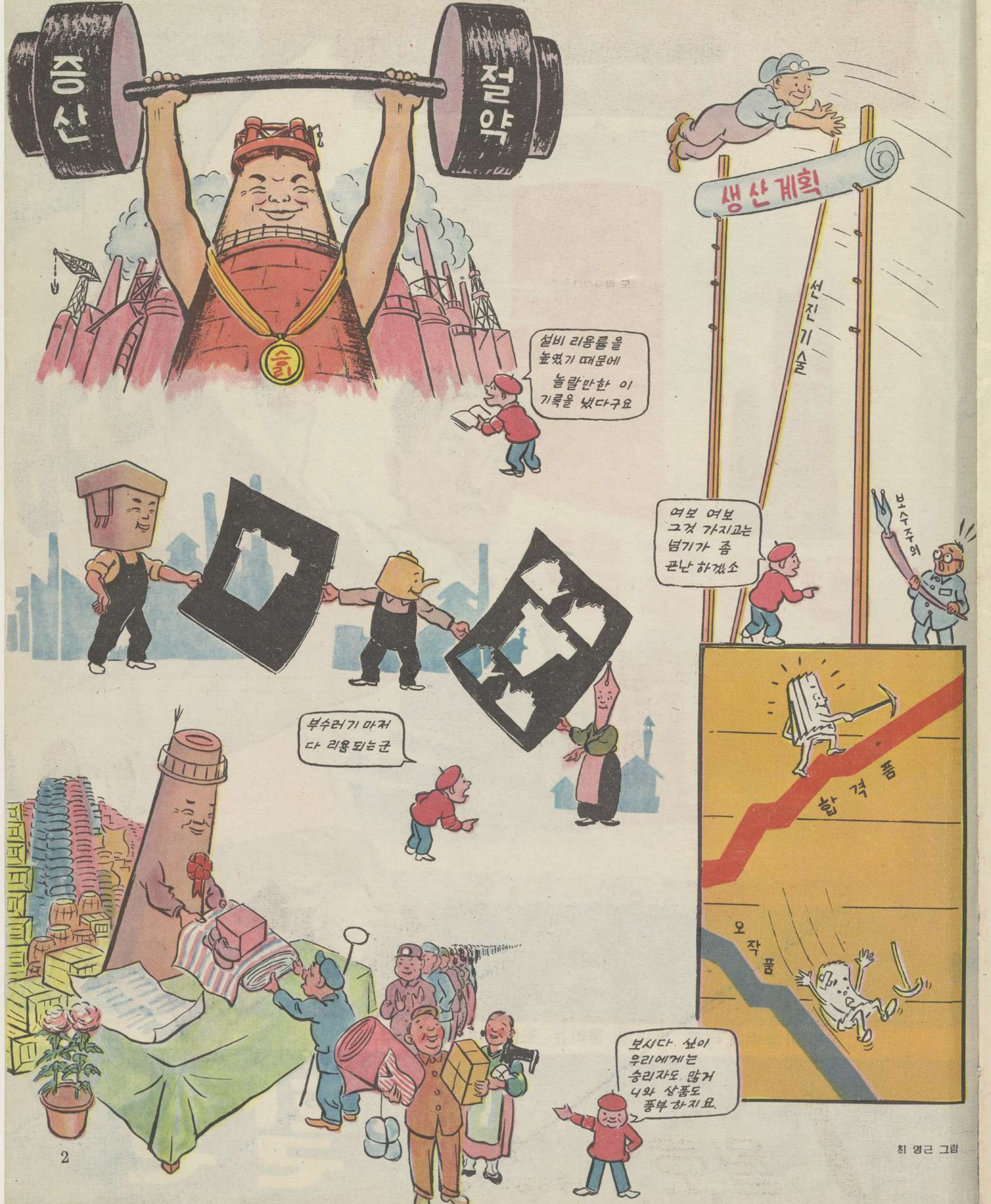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활살

1월호

1958년 (86)

공업에서 새로운 앙양 (1957년은 승리의 해였다)



최 영근 그림

령세몰락되여가는 남조선 산업경제

류 계 환

영국의 경제 잡지 《에코노미스트》의 남조선 특파원은 서울에서 개최되였던 《전국 박람회》 광경에 대하여 쓴 일이 있다. 그는 박람회장에 못, 볼트, 잠을쇄, 뽐프, 호쓰, 파이프, 소구루마 및 소구루마의 차축과 같은 제품들이 수다하게 전시된 것을 보고 이러한 제품들은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1955년에 있은 일인데 박람회 조직자들은 외국 기자에게 톡톡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해서인지 1956년 여름에는 이러한 《골동품》들은 진렬하지 않고 그 대신 형형 색색의 각종 기계들을 차려 놓았다.

한번 박람회를 구경간 리 승만은 진렬품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란서 기자가 진렬장에 전시된 기계들의 《래력》을 신문 《프랑스쏘아르》지에 소개했다. 알고 보니 그것들은 남조선에 있는 외국 기관들에서 빌려온 것들인데 남조선의 사기한들은 외국 상표들이 색여 있는 그 자리에다가 《한국제》라는 렛델을 붙여 놓았던 것이다.

사실 박람회 조직자들은 외국 제품들을 진렬할 대신에 소구루마나 소구루마의 차축들을 갖다 놓은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외국에는 없으며 누구의 눈에도 《국산품》이라는 것이 상표 없이도 명백한 것이여서 꼬리를 들어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외국 기자에게까지 위선자의 락인을 찍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조선에 하고많은 일화 중의 한개 적은 실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사건》은 일반적으로는 남조선의 경제력을, 특수적으로는 남조선 공업 생산의 현 상태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남조선에 기계 기구 공업의 토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인된 자료에 의하면 해방 전에 전 조선 기계 기구 공업 시설의 72%가 남조선에 있었다. 그리고 그리 복잡하지 않은 기계 기구류의 24,7%를 국내에서 생산 자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그것마저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계류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금속 및 기계 기구 공업 부문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은 최근 12년간에 4만명으로부터 2만명 즉 절반으로 축소되였다. 그리하여 과거의 금속 공업은 오늘에 와서는 《대장'간》으로 전락하였고, 기계 공업은 《제조업》으로부터 《수리업》으로 업종을 바꾸었다. 남조선 산업이 이처럼 령세 몰락되는 것은 비단 금속 기계 공업 부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이것은 제조 공업 전반의 일반적 특징이다.

남조선 출판물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 전체 제조 공업 기업소 중 73,3%가 19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령세 기업체이며 천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는 전체 기업소의 0,1%에 불과하다. 매개 공업의 평균 종업원은 22명 미만이다.

남조선의 기업체들은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시설도 락후하다. 남조선에서 대표적 산업 부문이라고 하는 방직 공업 부문에서는 시설의 50% 이상이 미국 기타 나라들에서 폐물로 된지 오랜 20여년 전의 낡은 시설로 장비되고 있다. 그러니 절대 다수의 소규모 공장의 시설에 대하여는 말할 여지도 없을가 한다.

남조선 공업 생산액 중에서는 원료비가 50% 내지 8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체들이 무엇이고 하나도 자력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없으며 미국 상품의 단순한 청부 가공 공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조선 기업체들은 원료가 있으면 공장을 돌리고 그것이 떨어지면 부득이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원료는 구매 자금과 함께 군수 부문 기업체나 예속 자본가들만이 독점하고 있으므로 민족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중소 기업체들은 자금과 원료가 없이 시시각각으로 파산되어 가고 있다. 1957년 봄에 남조선 21개 업종별 기업체 중에서 48,1%가 조업을 중단하였는데 그후 7월에 와서는 전라북도 관내에

× ×

서만도 기업체의 80%가 다시 조업을 중단하였다. 자금과 원료와 전력이 없었던 것이다.

남조선에 한 생산업자는 《기업가들이 공업인인지 걸인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한탄하였는데 이것은 남조선 기업가들의 오늘의 처지를 단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겠는가?

남조선의 민족 산업을 압살하는 미국 잉여 상품의 범람, 경제를 송두리채 탕진하는 군비 확장, 중소 기업가들의 주머니에서 푼전마저 짜내는 고률 과세, 등등 이러한 것들이 남조선 경제를 쇠퇴에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 승만 도당의 류례 드문 악정이 이러한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국 기관의 관리 노릇을 한 젠킨스라는 카나다인은 전에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딸라가 아니라 평화와 좋은 정부이다》라고

《딸라가 들어오고 리 승만의 독제가 존속하는한 한국 정세는 더욱 악화되여 가기만 할 것이다》라고

《완전한 정치적 변혁……리 승만의 독재를 없애고 모든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부를 수립함으로써만이 한국의 최종적 멸망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젠킨스의 수기 《남조선의 내막》)

서방측 관리들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경제가 파탄과 예속을 면하는 길— 그 길은 오직 미국의 식민지 통치와 리 승만의 악정이 종식되고 남북의 경제 교류가 달성되며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길 이외에는 없다.

리 승만의 기아 예산

미제와 리 승만 매국 도당은 방대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1957년에는 《초긴축 정책》을 실시 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초근 목피로 연명하도록 강요해 왔는바 금년에는《전반적인 긴축 인내 정책》으로서 더욱 혹심한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백 인균 그림

설 맞이 (남조선에서) (1)

박 승히 그림

다정한 유희

송 용남 그림

등치고 간 빼먹기도 몇만가지

오 흥 택

돈 없고 권세 없으면 못 산다는 남조선에서……그렇다면 돈과 권세 중 어느 것이 득세하느냐고 물으면 쌍둥이라는 것, 돈 있으면 권세가 생기고 권세 있으면 돈이 생긴다니 과연 대양 건너 양키식대로 뜯어 먹고 빼앗아 먹고 등쳐 먹고……거리마다 골목마다 란장판은 벌어지니 눈 감으면 코베 간다는 말은 그래도 옛말이고 눈뜨고 목 베 가는 세상——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수 없다는《약육 강식》의 승냥이 철학이 횡행하는 세상——

등 치고 간 빼 먹기도 몇 만가지다. 양키들의 피'값 흥정과 리 승만의 매국 흥정, 정상배들의 사기 협잡과 매관 매직 양키식 살인 강도와 깽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천가지 략탈 방법을 어이 다 말할 수 있으랴. 여기선 다만 최근에 있은 두 서너가지만 이야기해 보자.

《돈'벌이 주간》

괴뢰 정부 나으리들이 인민들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짜 내려고 이리 쑤군덕 저리 쑤군덕하던 끝에 생각해 낸 묘안이……

10월 6일부터 1주일간은《편지 쓰기 강조 주간》이라고 선포했다. 자아 너도 나도 편지를 쓰라, 우표를 사라고…

《교통 사고 방지 주간》에는 소책자를 팔아 한몫 보고, 《병역 기피자 자수 주간》에는 뢰물 받아 한몫 보고《편지 쓰기 강조 주간》에는 우표 팔아 한몫 보자.

리 승만식으로는 묘안임에 틀림 없는데 웬 일인고 사람들은 조소를 퍼부으니…

《조선일보》는《허구 많은 무슨 무슨《주간》이 해방후의 통례이기는 하지만《편지 쓰기 강조 주간》이라고 하면 편지를 더 쓰게 되는지 ?》하고 야유를 했고, 남조선 인민들은 이런 소위《주간》들을 통털어《돈'벌이 주간》이라고 한다.

전쟁 선동판엔 《종교》도 한몫

가마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리 승만이 전쟁을 지꺼리지 않은 날은 없다고, 이 전쟁 나발통이 시끄럽게 떠드는 판에《태극도》라고 하는 사교(邪敎)가 돈'벌이로 한몫 보았다고—사유인즉, 《태극도》를 믿으면《원자탄의 재해를 면한다》는 말을 류포시키고 그를 확증하기 위하여《이 도의 신자는 지난번 전쟁 시기에 한명의 희생자도 없었다》고, 그리고는 거액의《입교비》를 요구하여 한몫 보는 것이라고——

이 사기판에 자그만치도 160명이나 가장집물을 털어 바쳤다니 인공 위성이 우주를 날고 있는 이런 과학의 시대에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

몽매와 미신과 운명론을 전파하여 인민들을 파국적인 현실로부터 눈을 감게 하려는 리 승만 도배의 악정이 빚어낸 하나의 넌센스.

가짜로 한몫

리 승만의 가짜 대통령을 위수로 가짜 장관, 가짜 국회 의원, 가짜 순경, 가짜 헌병, 가짜 군인……이것도 몇 백 가지는 되는 모양인데…

그 가짜 중에 어느 것 하나 해롭지 않은 것이 있으랴마는 그중에서도 식료품의 가짜는 뭇사람에게 위험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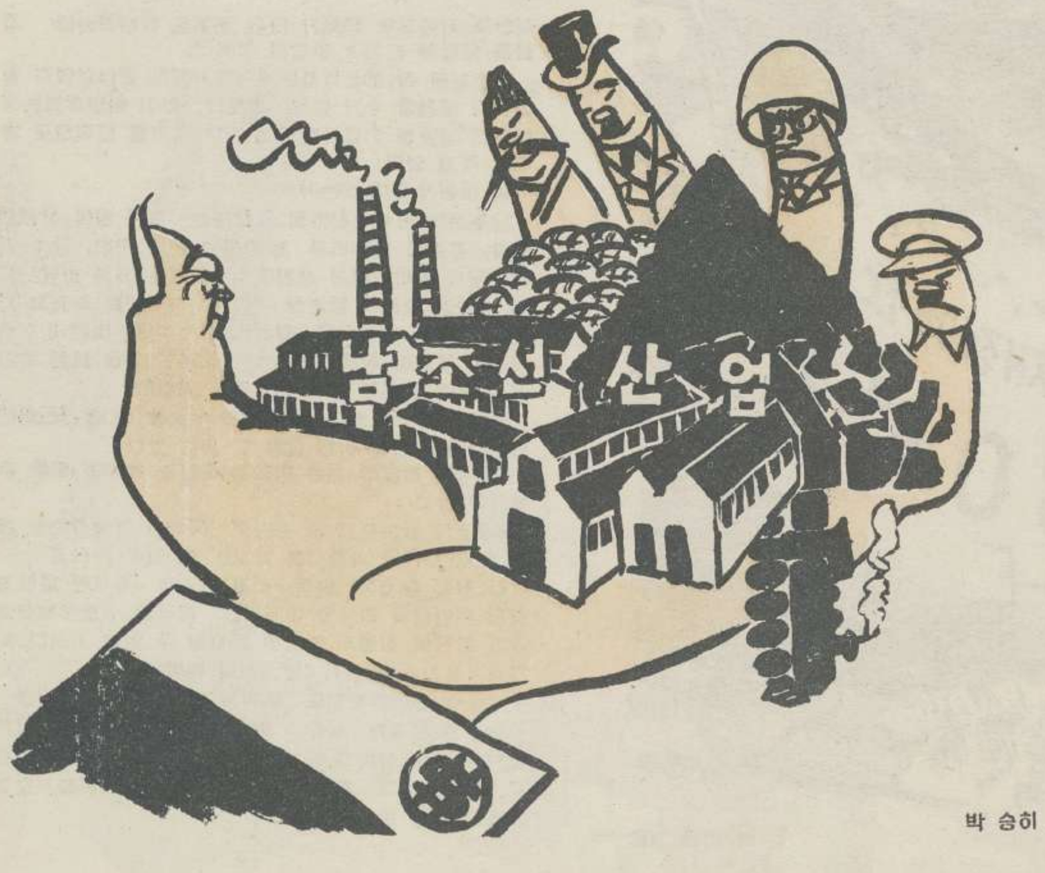
최근 서울 시내에만 7개 종류의 가짜 간장이 대량 판매되였고, 톱'밥에 물들인 것이 고추'가루 행세하고, 가짜《마이씨링》가짜《페니씨링》은 구급 환자를 사망케하고 가짜 화장품은 녀성들에게 피부병을 발생시켰다니…

그건 또 그렇다 하고, 가짜 딸라와 가짜 지폐 바람에 가산을 털린 사람도 있다고… 과연 이것도 가짜《한국》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 가짜 헌병에 진짜 헌병이 혼났다는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니며 가짜《대통령 비서》가 나타나 관리들에게 호통하는가 하면 리 승만의 가짜 양자가 경찰서에 나타나 돈을 털어 갔다니 이런 가짜 판국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렇구 보니 문'간에 매여 놓은 개마저도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간을 못하여 짖지를 못한다나,

《동아일보》가 쓴 것처럼 가짜판 세상에서《가짜 아닌 것으로 선뜻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해와 달 뿐》

먹히느냐 먹느냐 하는 판국에서 가짜로 한몫 보는 것도 원래가 가짜판으로 돼 먹은 세상이 빚어낸 산물이니 우선 리 승만의 가짜《정부》를 없애지 않고는 모든 진짜가 가짜에게 피해를 당하게 마련이다. 가짜 중에도 그 원흉은 리 승만의 가짜《대통령》

장악했다



박 승히 그림

남조선 시장에서

박 승히 그림

미국식《원조》의 대'가

송 용남 그림

한강 다리가 돼지 다린가

신 홍 순

요즘 서울에서는 모여만 앉으면 의례 한강 다리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리 승만 괴뢰 정부가 륙칠년 동안이나 수리한다고 떠들어 오던 한강 인도교가 원상대로 복구는 못되였을망정 가설 공사로 요지음 개통식을 했는데 그 이틀날 벌써 점점 금이나고 군데군데 구멍이 뻥뻥 뚫러졌으니 인민들의 물의를 일으킬 것은 정해 놓은 리치다.

《여보게 자네 마스크는 왜 잔뜩했나》

《감기가 들어서》

《감기면 약을 먹구 땀을 내야지》

《말 말게 나무가 있나, 석탄이 있겠나, 랭방에서 소금을 구울라기 병을 얻었네, 땀이 다 뭔가 ?》

《그럼 좋은 수가 있네, 나허구 같이 가세》

《어디루 ?》

《저 한강 다리루》

《뭐 ? 아무리 남조선 땅에 자살자가 날마다 늘어가기로니 그래 감기때메 죽어 ?》

《누가 죽는댔나 ?》

《그럼 한강 다리에 가서 뚝 떨어지란 말이 아니구 뭐야 ?》

《땀을 내러 가잔 말야, 한강 다릴 한번 건느기만 하면 어쨌든 물 속에서 나온 사람 모양으로 겉옷까지 흠싹 젖을 판일세》

《아니 한강 다리야 외려 매운 강'바람이 쌩쌩할텐데 땀이라니 ?》

《자넨 요즘 한강 인도교를 한번도 못건너 봤구먼 그래 ?》

《뭐 건너갈 일이 있었어야지 ?》

《한강 다린 말야, 워낙 외나무 다리처럼 좁다랗게 만든데다가 란간은 어찌나 낮은지 있으나마나 허구, 게다가 군데군데 우'물 아구리 같은 구멍이 뻥! 아랠 나려다 보면 천야만야한 시퍼런 강물인데 앗차 한번 실수허는 날이면 없네, 없어!》

《야! 그거 ?》

《다리는 좁은 데다가 오구가는 사람은 많아 놓니 서로 어깨를 부비구 돌아 가는데 오락가락하는 자동차는 뻥뻥! 그러니 어째 땀이 안나겠나 ?》

《거 정말 한번 건느자면 온 몸에서 진땀이 버쩍버쩍 나겠네 그래 ? 아니 몇해를 두고 한, 다리 공사가 그 모양이야 ?》

《그게 말야 리 승만 괴뢰 정부가《조흥 토건》이란 개인 청부업자에게 6천 9백여만환에 청부를 주어 놓고는 우로는 대통령이며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아래론 현장 감독에 이르기까지 이리 뜯어 먹고 저리 뜯어 먹고하다 나니 그렇게 구멍이 날 수 밖에》

《아니 한강 다릴 삶은 돼지 다리루 알았나 ? 뭇놈이 달라 붙어 뜯어먹게 ?》

《그러기에 리 승만의 복구 공사를 야유해서 이런 노래까지 류행되고 있다네》

《어떤 노래가 ?》

한강의 다리는 사다린지
한번만 건느자면 진땀이 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승만이 건설은 빵구나 건설

한강의 다리는 돼지 다린지
괴뢰 정부 관리놈들 다 뜯어 먹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승단이 건설은 빵구나 건설

룩령에 만화사전

락하산 융자

가짜판

빽

사바 사바

팔법 통치

—륙법 외에 비법 무법이 있으니 걸리지 않는게 없단 말이야!

감투

백 인규 그림
조 명식 그림

두 살인 사건

유 항 림

살인 강도 사건이라는 말에 한《경위》는 벌떡 일어나서 손수 전화를 받았다.

《뭣이? 괴한 두명이 길 가던 사람을 칼로 찌르고는 금품을 강탈해 가지고 도주했다고?…그럼 현장으로 내 곧 갈테니까…음? 동네 사람들이 알고 모두 고함을 치고 떠드는 바람에 범인들은 도망해 버렸단 말이지?… 아직 밤도 깊지 않은 초 저녁인데 동네 사람들이 떠들 때까지 너희들은 뭘하고 있었나 말야?!좌우간 내 곧 갈테니…뭣이? 범인들은 미군이라구? 그게 분명한가? 동네 사람 여럿이 봤다구?…체 그럼 뭐 그렇게 서두를 것도 없지 않는가?!이봐, 누구든 응원으로 두어명 보낼테니 동네 사람들이 함부로 떠들어 대지 못하도록, 그거나 잘 단속하란 말야…》

× ×

미군의 거듭되는 행패에 격분한 사람들이 아현동 사건 현장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살해 당한 사람의 가족들도 달려 왔다. 현금은 얼마나 도난 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차고 다니던 자동식《오메가》팔목 시계가 없어진 것이 판명 되였다.

격분에 들끓고 있는 군중을 흩어 버리고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빙자해서 군중을 사건 현장에서 멀리 쫓아 버릴 필요를 경찰들은 깨달았다.

얼마 후에 달려온 미군 헌병들은 경관들을 한편 구석으로 불러서 무언가 쑤군거렸다.

심문이 시작되어 길옆 집에서 살고 있던 김 병팔이 먼저 심문을 받았다.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비명을 듣고 문틈으로 내다 본 그는 고함을 질러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다. 그가 목격한 것을 다 설명하자 경관 옆에 서 있던 미군 헌병이 질문을 시작했다.

《무엇으로 범인을 미군이라고 판단하오?》

《내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귀로 들었으니까 모를 리 있소? 미군 군복을 입고 키가 커다란 자들이 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면서 저들끼리 영어로 떠드는 것을 들었소》

《분명히 미군 군복을 입은 걸 보았다고 하니 그자들의 직위는 무어요.》

《어두워서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소》

《그자들이 영어로 뭐라고 했소》

《나는 영어를 모르오》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영어라는 걸 알았소? 그리고 직위를 알아 볼 수 없었다는 걸로 미루어 그것이 분명히 미군 군복이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소, 과학적인 증거를 내 놓으시요》

미군 헌병은 이렇게 증인의 증언을 무근거하다고 부인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엔 위협했다.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없이 범인을 미군이라고 하다가는 단단한 책임이 돌아 갈 줄 아시오》.

조사는 이런 투로 진행되였다. 그리고 이 소문이 항간에 파다하게 퍼지자 괴뢰 경찰은 발표하기를《증인의 말에 의하면 범인은 미군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가질 수는 있으나 어두웠던 관계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고 하여 범인 수사는 지금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현동 살인 강도 사건이 있은지 이틀 후의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게재되였다.

《을지로 2가에 있는 천일 시계점으로 어제 미군 한명이 찾아와 자동식《오메가》팔목 시계 하나를 팔고 갔는 데 시계를 산 후에야 시계점 주인 전 태환은 전날 아현동에서 자동식《오메가》를 도난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 계출하였다. 그런데 전 태환의 말에 의하면 이 시계를 판 자는 그 구역을 늘 순찰하는 미군 헌병 상사 홉킨스라고 한다》

이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범인이 판명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그 이튿날엔 경찰이 또 이를 부인하는 발표를 했다.

《천일 시계점 주인 전 태환이 샀다는 시계는 얼핏 보면 아현동 강도 사건에서 도난 당한 시계와 모양은 비슷하나 자동식 오메가는 아니다》

이 발표를 신문 기자들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시계점 주인이《오메가》도 아닌 것을《오메가》로 잘못 보았다고야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신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경찰에서는 실물이라며 팔목 시계를 하나 내놓았다. 보니 강도에게 잃었다는 시계가 아님 것은 분명했다. 그래도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기자들은 모두 을지로 2가의 천일 시계점으로 달려 갔다.

그런데 기자들이 달려간 시계점에서 주인 전 태환을 만날 수 없었다. 어제 밤에 어떤 손님과 나간 후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였다. 이렇게 하여 전 태환은 행방 불명이 되였다.

한편 미군 당국은 서울 시내에는 홉킨스라는 헌병 상사는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여 이 사건은 다시 소위《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다. 남조선 인민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는 반드시 미군과 괴뢰 경찰이 짜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를 폭로할 증거가 없었다. 그 뿐 아니라 남조선 천지에서 날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미군의 만행들 속에 묻혀서 이 사건에 대한 인상이 차츰 사라져 갔다.

× ×

아현동 강도 사건이 있은지 두 달이 지난 어느날 저녁의 일이다. 인천 경찰서에서 나와 정거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내가 있었다. 그가 바로 전 태환이였다. 그는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인천 경찰서로 체포되어 왔었다. 그리고 체포된지 닷새 후부터는 시계 700여개를 밀수 했다는 애매한 죄명으로 문초를 받기 시작했다. 소위 증거라는 것들을 내 놓기도 하고 소위 공범자의 진술이란 것을 내 놓기도 하면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그로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굴한 일일 뿐더러 조고만 시계점 주인으로써 그렇게 시계를 한꺼번에 700개나 밀수입할 엄천도 없고 빽도 없었다. 자백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요즘 와서는 미군 헌병 홉킨스에게서 산 시계는 자동식《오메가》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쓰라는 것이였다. 그러면서 나가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석방하겠다는 것이였다. 그는 사흘밤 사흘 낮을 생각한 끝에 따로 마음 먹는 바가 있어서 경찰의 요구를 듣는 척하고 지금 나오는 길이다.

그런데 그는 인천 거리에서 뜻하지 않었던 홉킨스 상사와 마주치게 되였다. 이 두억신이 같은 살인범을 보자 전 태환은 눈에서 불'길이 일면서 이를 갈았다.

《이놈 여기 있구나!》

홉킨스는 얼굴을 실룩거리며 대답한다. 《두달 동안이나 있으면서 아직 령리해지지 못했소?》

전 태환은 그에게 담박 달려들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부르짖었다.

《네 이놈 두고보자! 래일이면 알게다》

× ×

이튿날 새벽에 전 태환의 시체는 인천역 옆에 있는 미군 군수품 로적'데미 부근에서 발견되였다.

이에 대해서 미군 당국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어제 밤에 철조망을 넘어 군수품 로적'데미로 접근하려 하는 자가 있었다. 보초가 고함을 지르자 괴한은 도망치려 했다. 보초가 세번 서라고 거듭 고함 쳤으나 서지 않음으로 보초는 발사했다…》

미국놈들이 제아모리 교묘하게 꾸미노라고 했지만 조선 사람들은 속지 않았다. 민족적 의분을 금치 못하는 조선 의사들은 자진하여 나서서 그의 시체에서 탄환들을 뽑아 냈다. 결과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판명되였다.

전 태환의 목숨을 빼앗은 두개의 탄환은 미군들이 보초 설 때 항용 갖는 보총의 탄환이 아니고 권총 탄환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 당국이 발표한 그러한 정형에서 발사한 거리에서가 아니라 3메터 내외의 거리에서 등 뒤로부터 발사한 것이라는 것.

미제 살인귀들은 자기들의 죄행을 감출 수도 없고 조선 인민이 들끓은 증오와 격분으로 웨치는《미국놈 나가라!》는 웨침을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설 맞이 (남조선에서) (2)

박 승히 그림

리 승만의 선거 준비

박 승히 그림

오는 5월로 박두한《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리 승만 도배는《선거법》을 개악하려고 책동하는 동시에 갖은 수단을 다하여 인민을 폭압하기 위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원무곡과 장송곡

원 광수 그림

정갱이 부러진 《힘의 정책》

유 항 림

쏘련에서 인공 위성을 우주권으로 발사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였을 때는 그것은 《누구나 띄울 수 있는 쇠'덩이》에 불과하다고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이 뇌까리던 미국인들 자신이, 두 달 후에는 미국의 인공 위성 《뱅가드》의 발사에 대해서 《류례를 볼 수 없는》 굉장한 선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심정을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라지오와 텔레비죤은 총 동원되였고 신문들은 《뱅가드》 발사의 성공에 대한 기사까지 미리 준비했고 현장에는 수 많은 관중을 모아 들였고 축하연까지 준비해 놓았었다. 무엇때문에 이런 대 소동이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세계에서 첫번째로 뜰 인공 위성일 것을 《확신》하고 불렀던 《뱅가드》(선구자——앞선자)라는 이름이 인제는 우둔한 자의 부질 없는 욕심을 상징하는 말로 변해 버렸다는 데만 그 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지구의 주위를 수 백 바퀴나 돈 쏘련 인공 위성의 350분의 1 밖에 안되는 주머구만 한 것이고 쏘련 인공 위성에 비해 4분의 1 밖에 안되는 높이에 띄운다는 데만 그 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쏘련 것의 350분의 1 밖에 안되는 뒤떨어진 《선구자》의 난처한 립장을 선전 소동으로 메꾸어 보려는 기도는 우선 미국이 그것으로 세계를 정복해 보려던 《힘의 정책》이 인제는 미국 지배층의 타산대로 세계 인민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혀 세계 인민의 웃음거리로 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을 울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된 것이다. 나발 불고 북 치고 하여 기세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옛날부터 허장 성세는 외로워지고 기운이 진하여 가는 자들이 즐겨 쓰는 상투 수단인 것이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 허장 성세나마 그들이 타산했던 방향으로 진행되였다면 그래도 위안이 되였으련만,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결과는 그들에겐 너무나 처량했다. 《류례를 볼 수 없는》 정도로 떠들어댄 대 규모의 선전 소동은, 결국 쏘련의 능력에 350분의 1 정도의 가능성은 미국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던 기도조차도 한갖 허망한 망상이였다는 것을 전세계에 광포하는데 도움이 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태와 부디쳤을 때, 미국인들이 미국은 과학 분야에서 쏘련 보다 훨씬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자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경하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쏘련의 선진 과학을 따라잡기 위하여 취해야겠다고 하는 대책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다시금 그 어리석은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쏘련의 과학을 따라 잡으려면 적어도 과학 발전에서 쏘련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그들도 가져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쏘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인민이 누구나가 과학을 배우며 과학 분야에서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해서 착취 제도가 없어지고 과학이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되는 조건에서만 과학 분야에서 쏘련과 경쟁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세계 인민을 웃기고 미국인들을 울린 《뱅가드》의 땅'재주가 있은 직후, 아이젠하워가 《할 말이 없다》고 한 것은 리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입이 열 있드래도 말 못하는 법이다. 우리로 하여금 아이젠하워도 제법 분수를 아는 때가 있다는 감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할 말이 없을 아이젠하워가 또다시 분수 없는 말을 지꺼리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개 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는 속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아이젠하워가 나토 리사회에서 또다시 《힘》에 대해서 지꺼렸을 때 그러하다. 그들의 소위 《힘》이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와서 누가 모른단 말인가?!

불란서 작가 루나르의 이야기 책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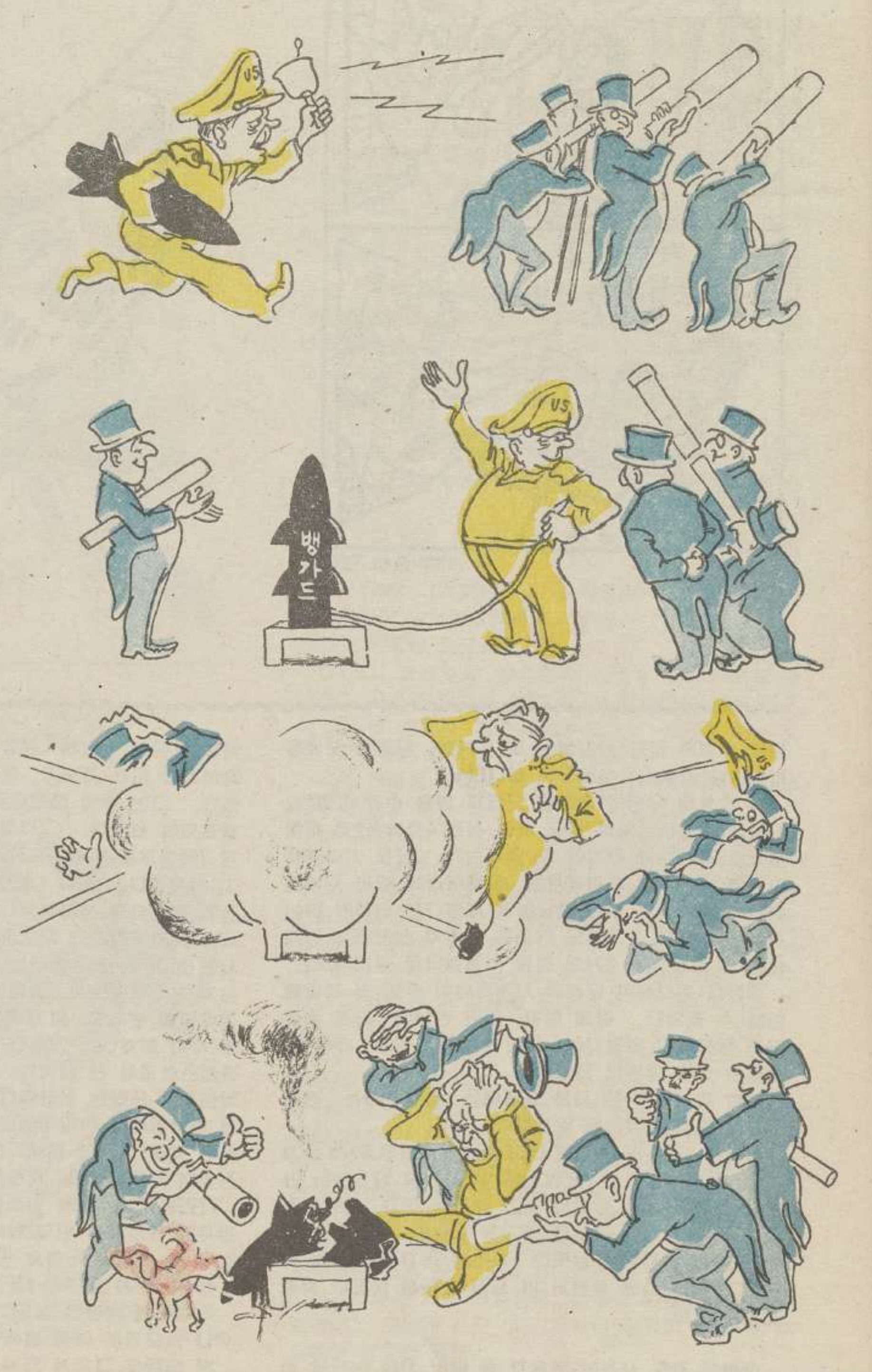
어떤 사내가 힘을 뽐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섰고 길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사내는 장작개피 하나를 골라 들었다. 꺾어 보이겠다는 것이였다. 사람들은 눈이 둥글해졌고 사내는 우쭐해졌다. 그는 한편 무릎을 쳐들고 장작개피를 정갱이에 가져다 대였다.

사내의 입에서 《에잇》하는 고함 소리가 나는 것과 함께 지끈하고 부러졌다. 정갱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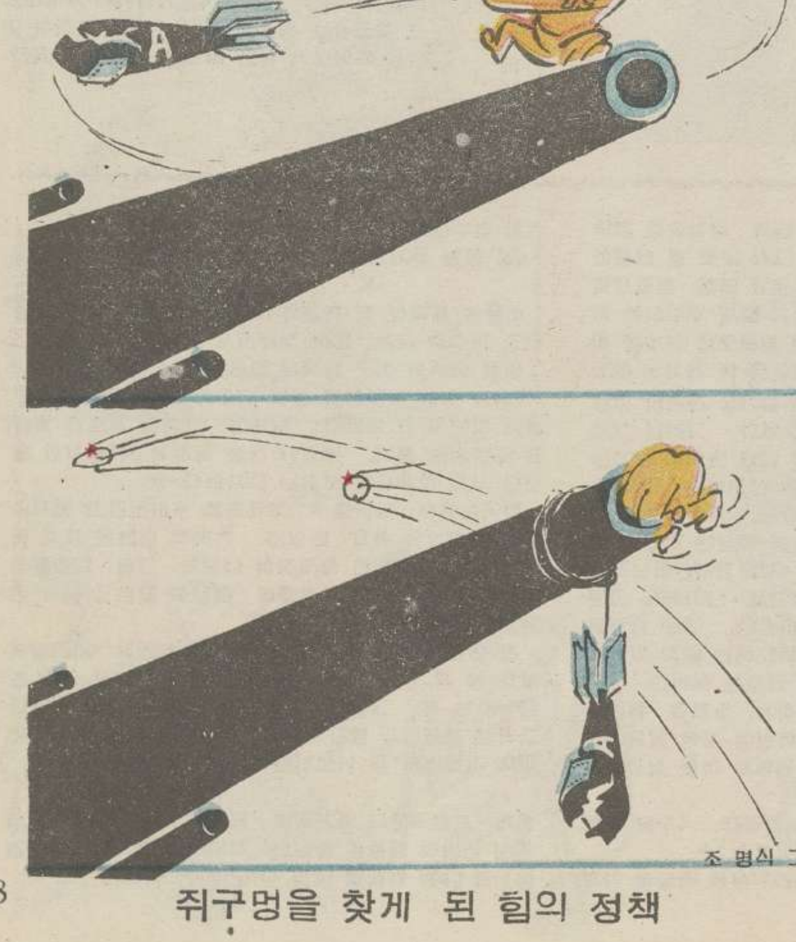
이 우둔한 《장사》는 지금 세상의 누구 형상을 방불케 하는가를 구구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쪽 정갱이가 부러진 《힘의 정책》 제창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분별 없이 《힘》을 자랑하려 든다면 남은 정갱이 마저 부러지고 말리란 것은 의심할 바 없지 않은가?!

《뱅가드》의《위력》은동료들을 웃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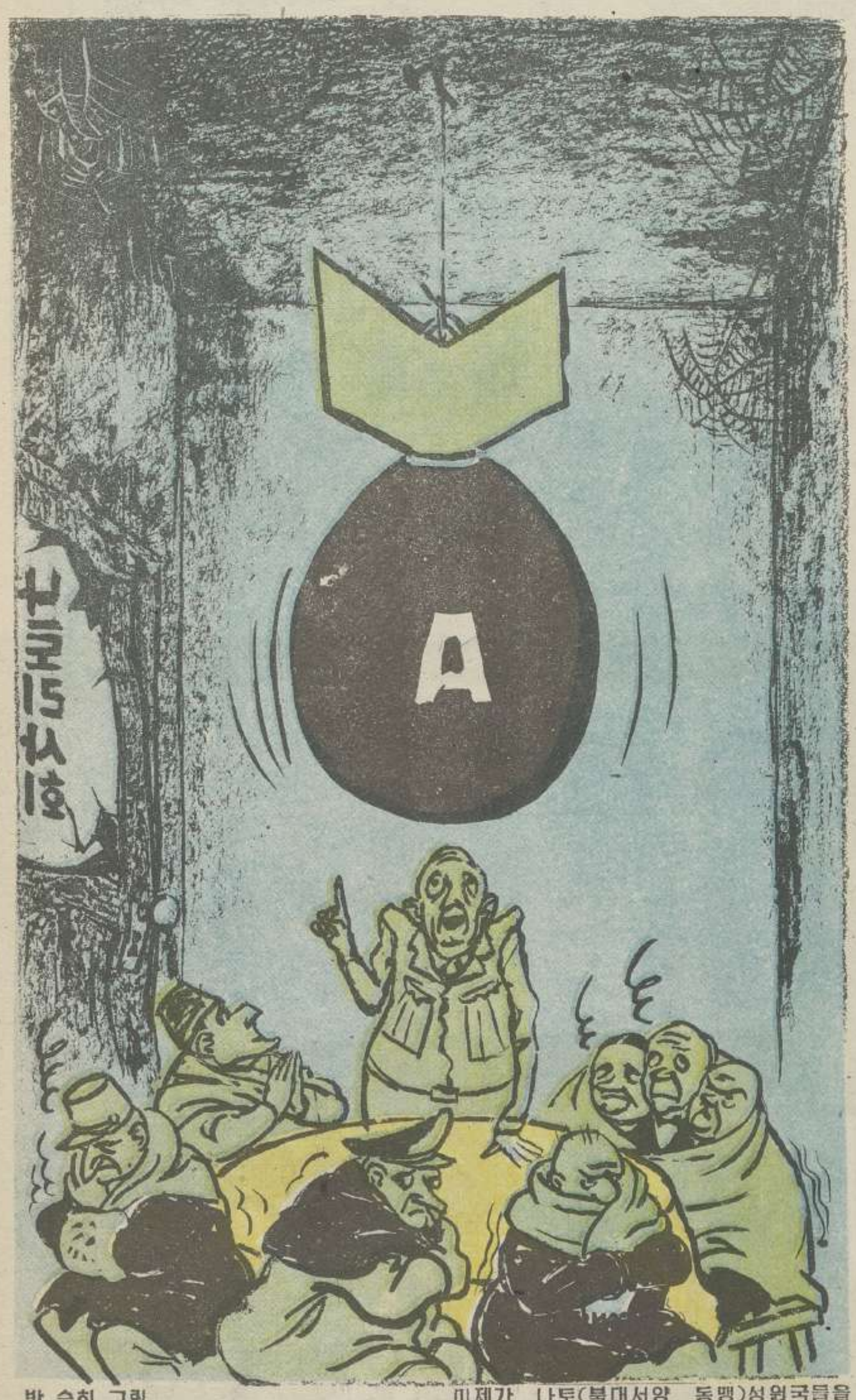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조 명식 그림

쥐구멍을 찾게 된 힘의 정책

위험 천만한 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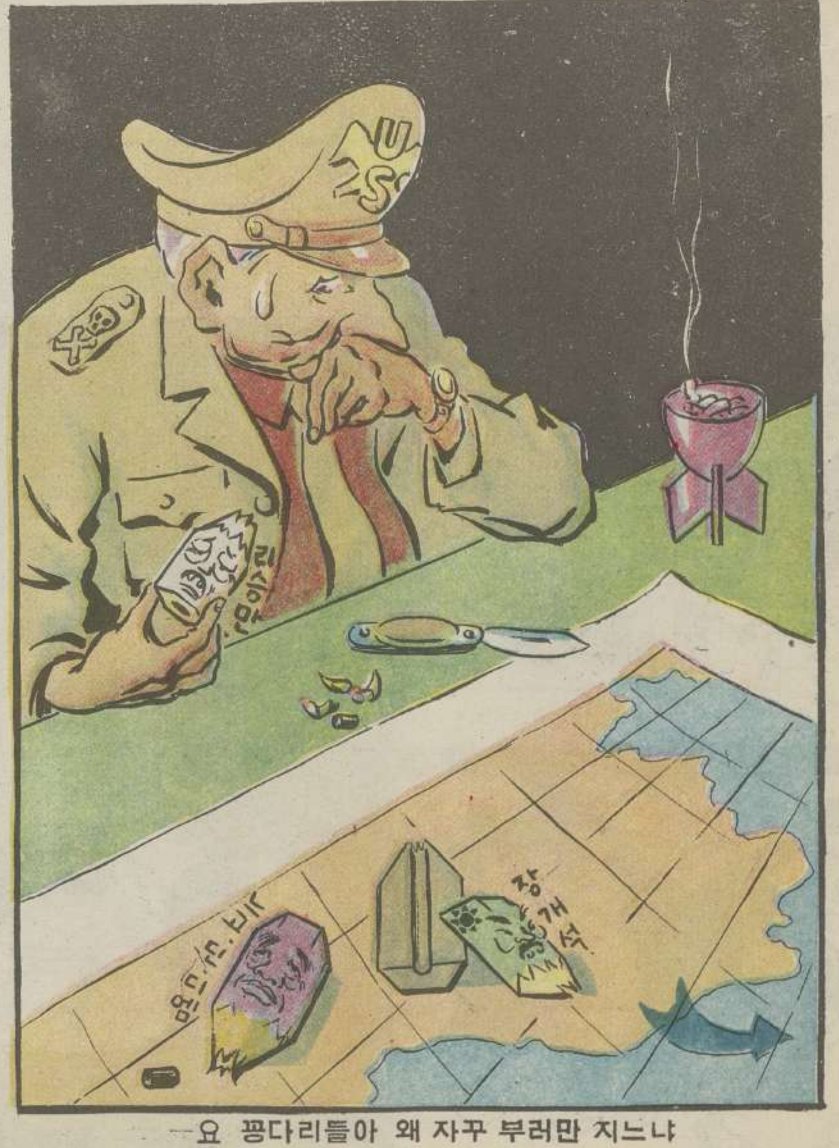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미제가 나토(북대서양 동맹)성원국들을 원자 및 수소 무기로 장비하려는 기도는 이 나라들에 대한 파멸적 위협으로 된다

호전가의 고민

최 영근 그림



—요 꽁다리들아 왜 자꾸 부러만 지느냐

괴상한 선물

신 흥 순

갑 해마다 설날이 돌아오면 새해 선물이란게 있잖나?
을 그렇지 오랜 친교와 두터운 정분에서 새해 인사루 보내는 미풍이지
갑 헌데 요즘 남조선에선 출세하기 위해서 선물이요, 취직하는 데 선물,
그리고 은행 대부에도 선물, 심지어 선거 운동으루 선물, 어쨌든 아첨과 매수, 사기와 협잡의 수단으로 선물 하는게 보통으루 돼 있단 말야,
을 그러니까 선물이 뢰물루 화해 버렸네 그려
갑 아무렴 그런데 이번 정초에 서울 경무대로 말야
을 음, 리 승만이 있는데 말이지?
갑 그렇지, 이번 설에 선물 한짝이 경무대로 왔단 말야
을 그건 또 누가 아첨을 헌 걸가?
갑 이건 누가 보낸다는 걸 밝히지도 않았는 데 파연 선물인즉은 굉장헌 선물일세
을 어떤 건데?
갑 아주 커다란 궤짝이야
을 커다란 궤짝?
갑 그래 리 승만이 생각에 《옳지, 그래도 내가 데리구 있는 장관놈들이 한모랍으로 해서 이렇게 여럿의 것을 한군데다 넣어 보냈구나!》허구 입이 귀밑에 까지 째져서 그 묶은 걸 풀구 풀구 또 풀구 해서 궤짝 뚜껑을 턱 열고 보니까 아 그 속에 궤짝이 또 있단 말이야
을 옳지 궤짝 속에 또 궤짝
갑 그걸 꺼내서 또 열구 보니 그 속에 또 작은 궤짝
을 야 무슨 은금 보환게로구먼 그래?
갑 글쎄 들어 봐! 그걸 열고 보니 또 궤짝 그속에 또 궤짝 맨 나종에 조고마한 궤짝이 나오는 데 그걸 쓰윽 열구 보니까 하 이런,
을 그래 뭐야?
갑 빨래 비누가 한장!
을 애개개! 아니 설날 보내온 선물이란게 겨우 빨래 비누야?
갑 그래 의미 심장헌걸세, 거기 편지 한장이 들어 있는데 뭐랬는구 허니 그걸 꼭 먹으라는거야
을 먹어?
갑 흐, 리 승만이가 원판 먹성이 걸차 놔서 《외자 도입법》이니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이니 해가지고 미국놈한테다가 귀속 재산도 팔아 먹구, 광산두 팔아 먹구, 중석이며 석탄두 팔아 먹구.
을 흥, 저런놈의
갑 나종엔 팔아 먹다 못해 공동 묘지 자리까지 그저 닥치는 대로 막 팔아 먹고 있으니 그놈의 '배'속이 쓰레기통 보다두 더 지저분 헐게 아닌가?
을 아무렴
갑 그러니까 이 세탁 비누루 배'대기 속을 세탁허라구 보낸거란 말야
을 아하 정말 의미 심장한 선물일세 그려
갑 그리구 또 한가지가 들어 있는 데
을 그건 또 뭐야?
갑 고무 풍선,
을 고무 풍선? 그건 또 뭘해?
갑 금년 5월달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나?
을 오, 참 그렇지
갑 그러니 리 승만 도배들은 선거 경쟁의 독판을 쳐 보려고 그전부터 허던 버릇으로 경찰이다. 테로다 농민회다 부인회다 총 발동시켜 가지고 유령 투표, 이중 투표, 무데기 투표, 게다가 파표요, 환표요, 가진 추잡하고 악랄한 것을 다헐 모양이니 자연 인민들의 기세가 폭풍처럼 일어날게 아니겠나.?
을 그렇지, 폭풍이 일어나구 말구
갑 그러니까 그땐 위험하니 미리 고무 풍선을 타구 올라 가라는 거야
을 어데루?
갑 하늘루
을 그럼 천당이게?
갑 천만에, 지옥이지
을 올라 간다면서 지옥이야?
갑 아 고무 풍선이 탕! 허구 터지거든
을 옳아, 그리구 보니 그건 선물 중에도 아주 괴상한 선물일세 그려?
갑 그렇지

설 맞이 (남조선에서) (3)

박 승히 그림

관영료금 인상 후의 토막 풍경
(남조선에서)

—애개개… 날이 갈수록 적어지는구나

—기차를 탔으면 벌써 가 왔을걸!
—아직도 우리는 짚신 열 컬레는 닳궈 야겠소

리 영준 그림

《빽》과 《간판》

김 광 현

남조선에서 《출세》 하려면 《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12년 전부터 자타가 공인한 《진리》이다.

그 모범으로 리 승만이가 미제를 《빽》으로 하여 괴뢰 정부의 《대통령》으로 된 것도 자타가 공인하는 《진실》이다.

그러나 《빽 (背景)》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데까지나 뒤에 있는 것이다.

뒤가 있으면 앞도 있는 법이니 《빽》을 말할 때엔 스스로 《간판》도 말하게 된다

그 실례를 들면 리 승만이의 《간판》은 《미국 철학 박사》이다.

《빽》이 든든하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간판이라는 것은 허황하다.

그것은 리 승만이가 무식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뻐젓하게 《박사》로 통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하고 있다.

그리고 든든한 《빽》은 언제나 《약한 간판》을 추켜 세우노라고 야단치게 된다.

그 실례를 들면 미제놈들은 언제나 리 승만이를 《떡터 리 (리 박사)》라고 추켜 내 세운다.

이 잠'고대 같은 《신파 연극》을 보고 부러워하는 남조선 정치 뿌로커들은 《박사》 칭호를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자기의 간판으로 삼는 경향이 생겼다.

그리고 무슨 《청년단》이니 무슨 《청년단》이니 하는 《간판》을 내 거는 것이 한결 같이 테로단이란 것도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며 그 두목들은 얼마 안가서 《장관》이라는 《간판》을 바꿔 거는 일도 있다. 그 실례로는 《서북 청년단》 부단장이던 문 봉제가 《교통부 장관》의 간판을 걸머지고 횡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정치 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니 혈액 은행의 앞자비로 청소년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흡혈귀들도 뻐젓이 《병원》이라는 《간판》을 내 걸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간의 사연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간판》의 새 용도가 생기게 되였다. 즉 《간판》은 《출세》의 도구로 씌울 뿐 아니라 보신의 도구로도 리용되게 되였다.

그 실례를 들면 서울 거리에서 가게를 벌여 놓긴 하였으나 물건은 잘 안 팔리는데 세금은 사정 없이 부과받아 패가 망신하게 되였던 장사'군이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도 《자유 당원》이라는 엉터리 《간판》을 내 세우며 탈세 행동을 하고도 묵인 받았던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을 들면 권총 찬 미군놈들과 칼 찬 도적들이 백주에도 횡행하며 인가를 마구 겁탈하는데 골치를 앓던 서울 시민은 자기 집에는 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개 있음》《맹견 주의》 등을 글'자와 더불어 그림까지 큼직하게 대문짝 가득이 《간판》처럼 그려 붙임으로써 자기 일가의 안녕 질서를 보호받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보신용으로 새로 씌우는 《간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니——금년의 남조선 농작물은 가물과 홍수로 2중의 타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 수득세》요 《토지 상환곡》을 비롯한 가렴 잡세를 강탈하기 위한 소위 《독려반》이란 경찰놈들이 마을에 들어 가서 농가를 발칵 뒤집어 놓는 형편인 데 그 옛날엔 만경'벌에서 괜찮게 살던 《찌보》라는 별명을 가진 농민이 자기 방앞에 떨어진 구두짝을 놓고 그 우의 모다귀에다 경찰의 모자를 걸어 놓았더니 《독려반》 경찰이 이것을 보고 《허어! 나보다 빨리 와서 추념하는 친구가 있군……》 하면서 그냥 지나쳐 다음 집에 들어 가서 술'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지 않았다고 해서인지 온돌'장까지 뒤집어 놓으면서 종자'벼 반가마니 마저 짊머지고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찌보》라는 농민은 경찰 모자등의 그럴듯한 《간판》을 내 걸고 진짜 경찰놈을 무난히 물리치고 욕을 면했던 것이다.

이처럼 《출세》를 위하여 조작되던 《간판》이 오늘은 《보신》을 위하여서도 씌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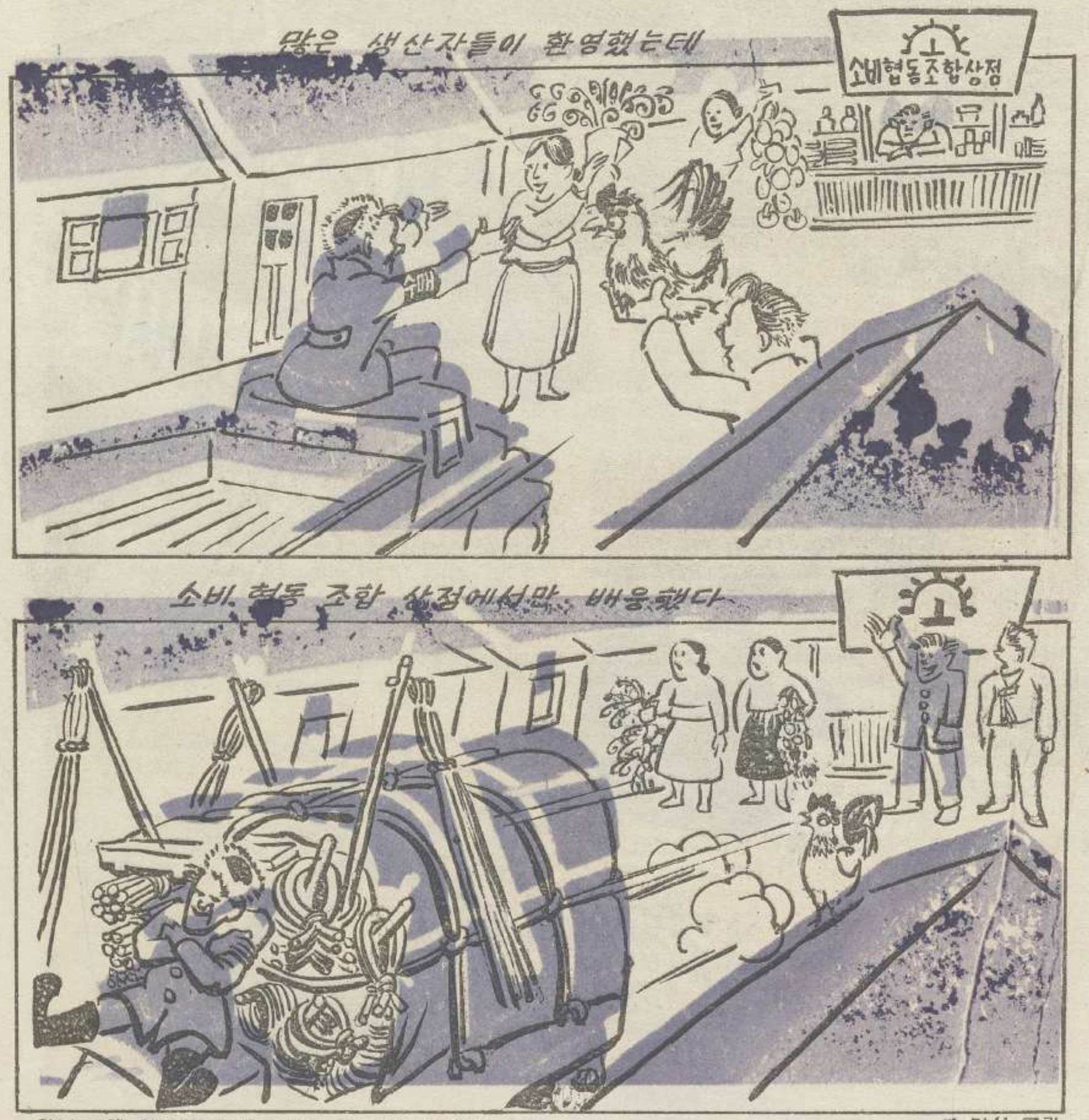
살인귀들의 상투적인 수단

조 명식 그림

《양키 문화》가 빚어낸 범죄

리 영춘 그림

남조선 괴뢰 《문교부》 발표에 의하면 학생 범죄 건수가 1956년에는 1951년에 비하여 2배로 증가되였다 하는 바 그 대부분이 퇴폐적인 미국 영화와 미국 서적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부 수매 일'군들은 지방에서 생산되는 다종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대신에 소비 협동 조합 상점에서 소매 가격으로 수매하는 참을 수 없는 경향까지 있다

조 명식 그림

자강도 식료품 도매 상사 수매사업 이모저모

《풍부하고 다종 다양한 농산물, 부산물 특산물들을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매 사업을 강화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들고 자강도 식료품 도매 상사 지도부나 수매원들이 근 일년 동안 상부 지시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매원 리 갑득 동무를 보더라도 닭 11마리, 노루 13마리, 버섯 40kg과 전분 고추등을 수매했고, 양 병섭 동무는 꿀 0.5kg, 계란 233개 감자 전분 등을 상품으로 인입했으니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그런 수매는 앉아서 떡 먹기라고》들 비웃는 걸까요? 리 갑득 동무로 말한다면 그 흔한 닭이나 노루를 한달에 한마리씩 수매한 폭 밖에 더 되느냐구요. 그리고 양 병섭 동무는 우리 자강도의 이름 난 꿀을 0.5kg 밖에 더는 수매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요?!

× ×

자강도 식료품 도매 상사에서는 가격이 높고 취급하기 쉬운 전분은 자기 계획을 204%로 초과 달성하면서도 계획 비중이 극히 적은 육류는 그나마 60% 밖에 수매하지 못하고 있다. 자강도의 특성으로 보아 원천이 풍부하여 능히 계획을 초과할 수 있는 저류는 47.8% 소채류는 88.5%, 건채류는 67.4%, 락화생은 80%, 기타 식료품들은 77.6%로 수매함으로서 수매 계획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이 상사에서는 각 군별로 되는 수매 원천 조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데로부터 도내의 풍부한 특산물조차 식료 상품으로 인입시키지 못하고 언제부터인지 이곳 수매 일'군들의 머리에는 벌써 전분=수매품, 수매품=전분으로만 생각이 되여서인지 전분에만 매달려서 금액상 달성에 급급하다고—그런가 하면 내각 결정 17호에〃수매 품종과 대상 및 장소에 제한이 없이 수매할 것이며 자유 수매 품종들에 대한 수매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유 가격에 의해서 진행할〃것이 명시되여 있는 것을 기화로 이곳 지도 일'군들과 수매원들은 이 조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데로부터〃꿩 잡는게 매〃라고 덮어 놓고 사 들이는 경향이 있다.

△ 뜰 안에 앉아서

물품을 산지에서 수매하여 비 산지에 교류하는 데 수매의 중요 목적이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 건만 산지로 물품을 찾아 다니는 것은 씨끄러운 일이니 차라리 앉아서 꿩이 날아드는 것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상사에서는 일정한 수매 계획에 의거해서 수매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상인들과는 다리가 이미 놓여진 터이라 창고에 앉아서 수매를 하기 시작했다. 고추'가루, 참깨, 꿀, 전분 등 가져 오는대로 사서 창고에다 쌓아올렸다. 따라서 수매 실적은 버쩍 올라갔으나 이 네가지만 하여도 산지에서 수매하는 것 보다 근 500만원이나 비싼 값이였다고— 그중에서도 고추'가루는 산지 가격의 38%나 더 비싼 값이여서 오래'동안 창고에 머물러 있게 되였다.

△ 남이 잡은 꿩으로 한몫

날아오는 꿩을 잡는 데도 증이 난 이 상사 수매원들은 새로운 방법을 궁리해 냈다. 그것은 남이 잡아 놓은 꿩으로 한몫을 보는 방법이다. 수매원 오 춘태 동무는 장진군 속사리 소비 협동 조합 상점에서 수매하여 놓은 고사리 1200kg을 소매 가격으로 수매하여 입고시켰다. 이것을 본 일부 수매원들은 그 방법이 저으기 마음에 들었고 실수 없는 방법 같이 생각되였다. 그래서 그《모범》을 따른 수매원 리 태익은 강계시 상점에서 75첩의 마늘과 400kg의 버섯을 사서 손 쉽게 수매 입고시켰고 수매원 김 병거는 모밀 2,450Kg, 조원학은 감분 7,154Kg를 소비 조합 상점과 로동 물자 공급 관리소에서 사서 입고시켜 놓고는 올라가는 수매 실적에 경탄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상사 수매원들의 특출한《창발성》에 의하여 국가 수매 실적은 2중으로 계산되였으며 따라서 부대비도 두번 붙여서 두번째 소매망에 나아갔다

김 상 애

이 새는 누구를 닮았는가?

—자네는 집을 안 지으려나?
—중앙에서 자재가 오기를 기다리네

백 인균 그림

전기 랑비 현상 이모저모

△ 원인은 어디에?

평양 전구 공장에는 변압기가 21대나 된다. 이 수'자는 이 공장에서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 듯한 인상을 주나 실은 그렇지 않다. 50키로씩 밖에 안되는 소형 변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압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다.

핑게 없는 무덤이 없는 법이니 이들에게도 역시 핑게는 있다. 즉 대형 변압기가 없다고. 그러나 실은 이들이 가만이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랑비되는 전력을 아까워하고 대형 변압기로 바꾸어 놓으려고 노력만 했다면 다른 성에 속한 공장 들에서 모두 해결하고 있는데 대형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계 공업성에 속해 있으면서 그나마도 그 공장들을 엎디면 코 다을 데 가지고 있는 전구 공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리 없지 않은가.

감나무 밑에 누워 입을 벌리고 있노라면 혹시 홍시가 입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쯤에나 떨어지려는지!

△ 특성만 빙자하고

복잡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려면 도면을 밝게 비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설성 중앙 설계 연구소 일'군들이 사무실에다 200 왓트의 전등을 22개, 300 왓트 전등을 9개씩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없다.

천정에다도 설계 도면을 붙이고 설계를 작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부 조명이나 등'갓을 사용하여 책상에만 전광이 집중되게 한다면 한급 낮은 전등을 사용해도 될 것이니 그러면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아무 지장 없이 설계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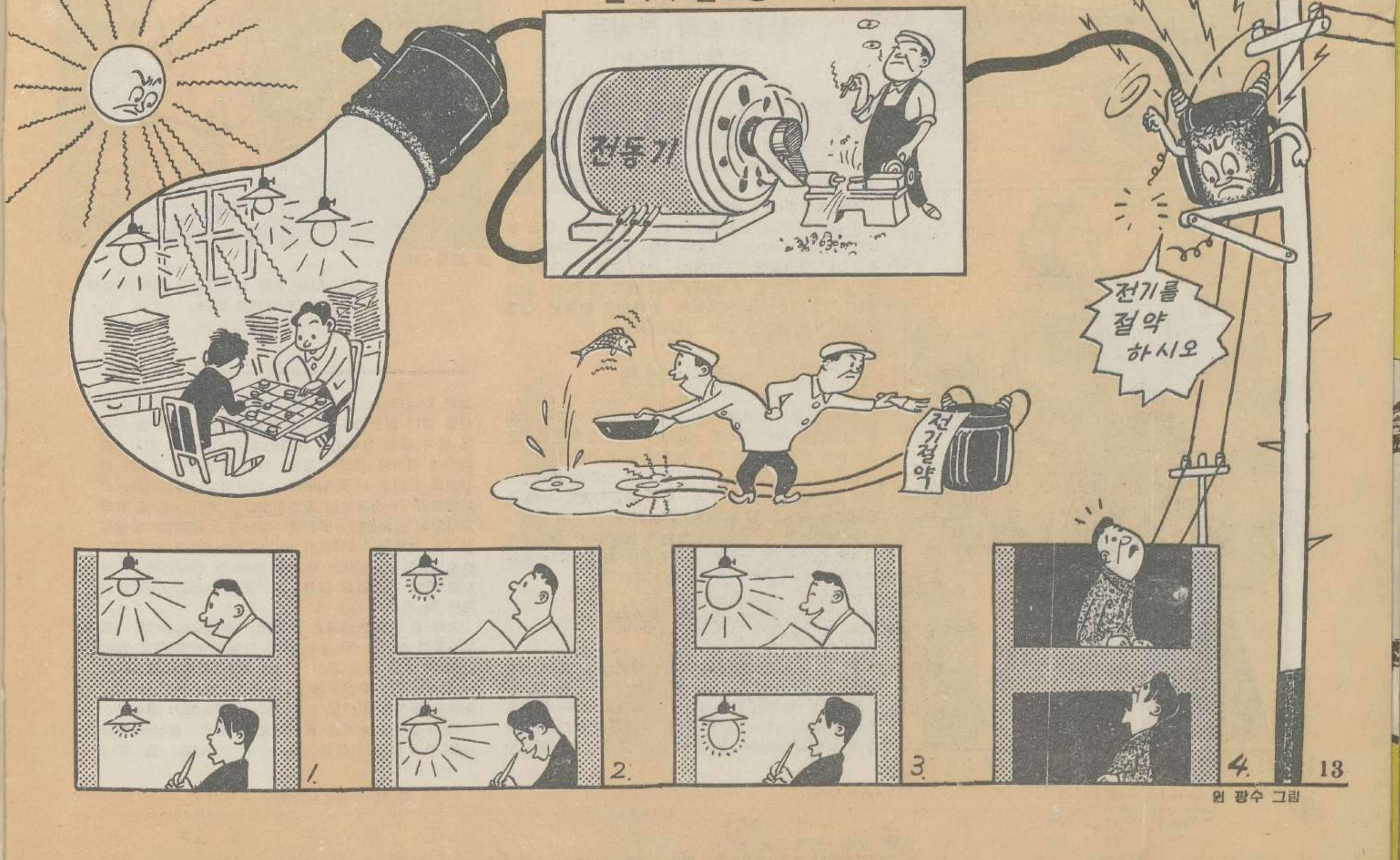
그런데도 이곳 설계 연구소 일'군들은 설계의 특수성만 빙자하면서 방'구석까지 고촉등으로 밝히며 많은 전기를 랑비하고 있다. 더우기 도적 전등을 쓰면서.

△ 영제 요업 공장에서

모터 1 자네 오래간만이군. 일하기가 재미 있나?
모터 2 재미는 없지만 아주 떡 먹길세
모터 1 그래? 나보다 더 쉬운가?
모터 2 자네 몇 % 힘을 내게?
모터 1 나는 내 힘 (출력)의 50%만 내면 되니까.
모터 2 뽐내지 말게
모터 1 뭐? 자넨 몇 % 내나?
모터 2 40%라네
모터 1 그래?!
모터 2 그러나 놀랄 건 없네, 17% 힘 밖에 안내는 동무가 다 있으니까.
모터 1 그럼 자네들은 영 건달을 피우는군 그래?
모터 2 배가 아픈가? 그러나 자네들은 날 미워할 필요는 없네. 동력부 일'군들을 미워해야지, 그 사람들 탓이니까.
모터 1 자넨 옳지 않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은혜도 모르구.
모터 2 나를 사랑해 준다고?
모터 1 아무렴! 우리가 힘 들어 할까바 50% 이하씩 밖에 일을 안시키고 있는데……
모터 2 그러나 그런《사랑》이 나를 되려 괴롭히고 있네
모터 1 그건 무슨 소리야?
모터 2 일은 조금씩 하면서 전기는 많이 먹어 없애니 량심에 가책이 돼 견딜 수 없으니까 말이야 우리는 국가의 전기를 막대하게 랑비하고 있거든.
모터 1 거야 적은 힘을 가진 동무들이 없기 때문이겠지
모터 2 아니야. 우리들도 결선만 바꾸면 용량이 3분의 1까지 줄어들어 전기를 조금씩 쓸 수 있는 데도 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네도 래일 동력부 일'군들이 가까이 오면 벨트로 꽉 끌어 단기게 정신을 버쩍 차리게.
모터 2 자네 아무 소리 말고 가만이 있게, 삶이나 좀 실컷 지게
모터 1 어떻게?
모터 2 전기를 많이씩 먹으면서 계속 일을 조금씩하면 삶이 질거 아닌가.

리 운 봉

전기의 신소장



원 광수 그림

대내외 상업성 공업품 도매관리국 사업에서

제 1차 5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는 농촌과 공장과 건설장들에서 증산과 절약을 위한 줄기찬 투쟁의 해였으며 눈부신 발전의 해였다. 따라서 향상되는 인민 생활에 순응하여 인민 생활 소비품도 그 생산이 급속도로 제고 되였다. 증산되는 인민 생활 소비품을 높아 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도록 공급함에 있어서 대내외 상업성 공업품 도매 관리국과 그 산하 상사들에서는 많은 일을 해 왔으나 아직도 주먹치기로 하는 일이 많다.

주먹치기 살림'군

최 한진 그림

위약금을 물어 가면서도

잠시 동안이지만 한 때 손님들에게 성냥을 한곽씩 팔던 일이 있다.

또 얼마 전에 빨을 사 내라고 조르는 애를 데리고 상점엘 갔더니 마침 이 삼일 전까지 다 팔았는데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였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들은 없어서 소매망에서 잠시 잠시 품절되는가 했더니 알고 본즉 생산 공장에는 대량으로 체화되고 있는데 상사에서 제때에 인수하지 않은 탓이였다.

성냥만 하드라도 전천 성냥 공장에서 인수하여야 할 근 2,000만원어치 성냥을 인수하지 않고 있는 탓이였으며 서성 고무 생산 협동 조합에서 생산한 10,000개의 고무 공도 상사에서 인수하지 않은 탓으로 소매망에 잠시 동안이나마 품절되였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때 담배 각연은 평양 연초 공장에서는 산'데미같이 체화되고 있었는데 소매망에서 절품되였던 것도 장마 때에 각연을 인수하면 부패되기 쉬우니 위약금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수하지 말라는 국장 지시가 하달된 탓이였다.

심지어 면직물을 비롯하여 내의류까지도 위약금을 지불하면서도 인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생색을 내서

독자들 가운데는 1957년도 로사용 공급이 굼뜨게 진행된다고 불평을 말한 동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1·4 분기에 공급되여야 할 로사용 면직물이 2·4분기에 가서 공급되였으니까.

그것은 1957년도로 조월하여 로사용으로 공급하여야 할 면직물을 상사내 공명주의자들이 생색을 내서 1956년도에 추가해서 류통망에 내 놓았기 때문에 부득이 1·4 분기 로사용 면직물은 2·4 분기에 가서 공급하게 되였다.

상품 보장 계획은 있으나마나

국가에서는 인민들의 수요에 따라 세워진 상품 보장 계획 비중이 있다. 그런데 이곳 일부 책임 일'군들은 수시 배정품이 있는 것을 기회로 상품 보장 계획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배정하였다. 소비 협동 조합은 마치나 이붓 아들 같이 차요시 하는 셈인지 언제나 지방 상업에 치중하여 상품을 배정하였다.

그 실례를 면직물 공급에서 본다 하더라도 수입 면직물 배정에서 지방 상업에는 보장 계획의 201%로 공급하면서 소비협동 조합에는 겨우 68%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면직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적은 수량의 면직물을 공급하게 되였고 당과 정부의 상업 정책을 외곡 집행하였다.

팔기 쉽게

인민들에게 편리하게 인민들의 수요에 맞도록 상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팔기 쉽도록 일하는 데로부터 상품이 생산지에 편중된 때가 가끔 있다.

본궁 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성 소다는 함경남도에는 290%로 배정하였는가 하면 평양시에는 54% 개성시에는 50%를 배정하였을 뿐이였다.

또 도자기를 보더라도 도자기를 생산하는 함북도에는 110%로 배정하면서 비 생산지인 자강도에는 39% 평북도에는 28.3%를 배정하였을 뿐이다.

피곤한 상품

·공업품 도매 관리국을 위수로 하여 중앙 도매 상사들에서 때로는 승부 없는 상품 리레 경주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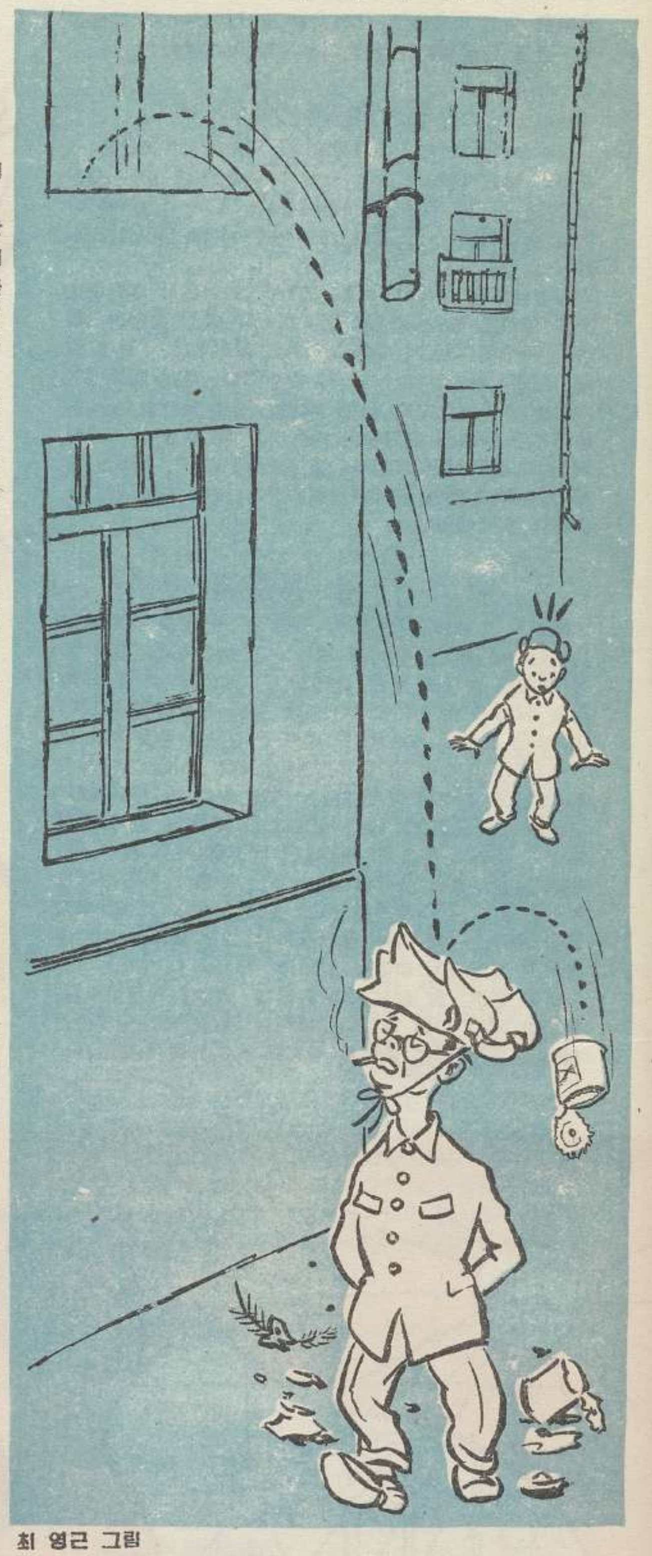
황해남도 상사에 배정되였던 기성복은 선도 못 본채 상부 지시에 의하여 황해북도로 보내게 되였다. 또 얼마 전에 녀자 고무신 6000족과 남자 고무신 6,200족 운동화 12,500족은 모두 함께 평양 중앙 섬유 및 신발 상사를 떠나 평안북도 상사로 배정되였다. 그런데 도착에 앞서 상부 지시문이 하달되여 있었다. 이 지시문에 의하여 목처럼 왔던 상품은 다시 평양시를 거쳐서 황해남도 상사로 가게 되였다. 황해남도 상사에서는 지체할세라 각 소매망에 배정하였다. 그런데 또 뜻 밖에 지시문이 날아왔다. 배정품 중에서 3,000족은 강원도 상사로 고무신 5,500족은 평남도 상사로 갈 것이 잘못 배정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신발들은 평양시를 떠나 수개월에 걸쳐 각도를 순회하고 다시 평양으로 되 돌아 왔다.

이와 같이 인민들에게 시급히 공급되여야 할 각종 상품들이 이 도, 저 도로 정처 없는 려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일도 있다. 얼마 전에 중앙 섬유 및 신발 상사로부터 자강도에 뉴똥 251m가 배정되였는데 아무리 대조해 보아도 뉴똥 251m는 간 데가 없었다.

이 뉴똥은 문서로만 배정했을 뿐 현품 대신에 현금으로 보내 왔었기 때문이다.

김 상 애

경험에서 나온 대책



최 영근 그림

일부 다층 주택 사용자들은 오물을 함부로 행길에 내 던지고 있다

경각심이 무딘 구석을 찾아서

△ 인심 좋은 기요원

기요원 박 준식의 집에 사촌 누이 동생이 찾아 왔다.

《오빠, 공무 려행증 하나 좀 떼주세요》

《공무 려행증? 안돼》

《오빠, 기술적으로 써 먹는데 알게 뭐예요, 찍어 준다고 도장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준식은 생각했다.

(하긴 떼 줘도 다른데서야 저 애가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그러나 그는 증명서들을 해 주면서 부디 당부했다.

《아거 잃어버리면 안돼》

그런데 어느날 박 준식은 내무 기관에 불리워 갔다.

《당신은 박 형숙이란 녀자에게 공무 려행증과 신임장을 떼 준 일이 있습니까?》

《예》

《이것이 당신이 떼 준 증명서들이 확실하지요?》

준식은 내무원이 내 미는 증명서들을 보았다. 분명하다.

내무원이 물었다.

《이 증명서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아십니까》

《·········》

《간첩이 이 증명서들을 리용하고 있었소》

《간첩이요?? 아니 어떻게? ······》

《그 녀자는 당신을 속였소. 간첩의 부탁을 받고 당신한테 갔었소. 간첩이 그 녀자를 꾀였던거요》

준식은 눈앞이 아찔하였다.

(아이구 이걸 어쩌나! 증명서 떼 준 대'가를 톡톡이 받았구나!)

△ 중요한 자리가 아니니

경리부장 사 연선은 길'가에서 옛날 한 마을 사람인 신 학주를 만났다.

비록 신 학주는 자기 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이였으나 한 마을에서 살던 사람을 20여년만에 만나니 반가웠다. 신 학주는 지금 ×× 기관에서 로무자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딴 일'자리를 구하려 돌아 다니는 판이라는 것이 였다.

두 말할 것 없이 신 학주는 사 연선에게 직장에 좀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리 부장은 생각했다.

(자기가 경리 부장으로 있겠다. 로무자로 써 달라는데 못 들어 줄게 뭔가)

그는 기숙사 부장에게 신 학주를 소개하였다. 기숙사 부장 허 여행은 신 학주에게는 무직 증명서 한장밖에 없었고 본인이 쓴 자서전(그것조차도 리력을 보증하는 보증인도 없는)에도 1930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간이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경리 부장이 아는 사람이라니까 더우기 간부라면 모르지만 화부로 일하는데······)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신 학주가 어떤 공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조차도 알아 보지 않고 그를 화부로 채용했다.

그 후에도 역시 그들은 신 학주의 신분을 알아 보지 않았다.

2년이 지나서 기숙사 부장이 경리 부장에게 물었다

《신 학주를 잘 아신다고 했지요?》

《알지 않구》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해방 후는 잘 모르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한 마을에 산 사람이니까》

《후퇴 시기 정형도 모르면서 뭐 아신다고 했소? 그놈은 후퇴 시기에 악질적인 반동이 였답니다. 그리고 공민증도 리 근화라는 가명의 공민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경리부장은 눈이 휘둥굴해졌다.

25년 전 자기가 어렸을 때 한 마을에 살았을 뿐 그 후 25년간의 경력도 모르는 사람을 안다고 소개하는 경리부장의 행동은 실로 놀랄만한 일이다.

리 운 봉

누구의 책임인가

홍 종호 그림 계획서를 통과시켰고 기술은 놀어 갔다

일부 군들에서는 농촌 청년들의 농업 기술 연구 크루쇼크를 지도함에 있어 조직하는데 끄치고 운영에 대한 지도 방조가 부족한 데로부터 크루쇼크들이 활발히 사업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다

제도와 질서와 규률이 약한 곳에서···

원 광수 그림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8. 1. 10 7—72199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8. 1. 15 값(50원)

USA
동포 부모 형제가
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가?
미군 나가라!
허 능랙 그림